

### 13. 홍랑(洪娘)의 향사(享祠)<sup>18)</sup>

명문의 집안에는 으레 가묘가 있게 마련이다. 가문을 빛낸 인물은 가묘와는 별도로 독립된 사우(祠宇)를 세우기도 했다. 이 사우에 배향된 사람은 후손뿐 아니라 온 문중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우러러 받들었다. 경북(慶北) 함창(咸昌)에 있는 함녕재(咸寧齋)는 양주조씨(陽州趙氏) 종문의 재각(齋閣)이다. 조선 초기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지낸 문강공(文剛公) 조말생(趙末生)을 모신 곳이었다. 이곳에 이번 자신을 희생시켜 지아비를 살린 제주의 의녀 홍랑(洪娘)이 배향되었다.

---

18) 『한라일보』(삼각봉), 1997. 09. 11 (목), 논설고문.

## 행복했던 두 연인(戀人)

논개(論介)나 신사임당(申師任堂)과 같은 특수한 예가 아니면 좀처럼<sup>19)</sup>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실로 기구한 사연이 있다.

남자 홍윤애(洪允愛)가 유배인 조정철(趙貞喆)을 만난 것은 그가 유배되던 1777년 이었다. 1775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대과에 급제한 조정철(趙貞喆)은 청운의 부푼 꿈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영조(英祖)가 죽고 정조(正祖)가 즉위하면서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노론벽파(老論僻派)에 속했던 그의 가문은 즉각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자신도 홍지해(洪趾海) 등의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제주에 유배되었다.

그때 27세의 젊은 청년 조정철은 제주성내에 적소를 마련하고 귀양살이를 시작했다. 날이 가면서 차츰 이웃과 사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홍랑과도 알게 되었다.

향리 홍처훈(洪處勳)의 막내딸이었던 홍랑은 타고난 미모와 영특한 머리를 지닌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다. 처음 그들은 존경과 동정으로 돕고 도움을 받는 사이였으나 어느 사이엔가 사랑하는 사이로 변하고 있었다.

고도(孤島)에서 보내는 서글픈 귀양살이였지만 조정철은 오직 홍랑과의 만남이 유일한 위안이었고 행복이었다. 1781년에는 귀여운 딸을 얻기도 했다.

---

19) 신문에는 '실로' 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좀처럼' 으로 수정함.

## 국문 맞서 대신한 죽음

그러나 바로 그해 저주의 화신이 그들에게 찾아들었다. 반대파인 소론(少論)의 김시구(金耆耆)가 제주목사가 되어 도입한 것이다. 김목사는 조정철을 죽일 작정을 하고 그 죄상을 캐는 데 혈안이 되었다. 여기에 적발된 것이 홍랑이었다. 목사는 그녀를 끌어다가 동헌 뜰에서 국문하기 시작했다. 가냘픈 여자였으므로 쉽게 자복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목사의 생각은 빗나갔다. 진작부터 홍랑은 새로 도입한 목사가 조정철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단 한 마디도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

목사는 홍랑을 거꾸로 매달고 형장으로 마구 패기 시작했다. 형장이 수없이 부러져 나가고 살점이 문드러져 나갔다. 결국 참혹한 고문을 견딜 수 없었던 홍랑은 끝내 처참한 최후를 마쳤다. 비장한 결심으로 죽음을 대신해 마침내 연인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다.

그 뒤 정조(正祖)가 죽고 순조(純祖)가 즉위했다. 다시 세상이 바뀐 것이다. 근 30년에 이르는 긴 귀양살이를 마감하고 조정철은 다시 관직에 등용되었다. 귀양이 풀린 지 7년만인 1811년 그는 북치고 나팔 불며 제주목사가 되어 도입한 것이다. 마치 신파극에서나 있을직한 희한한 일이었다.

## 목사(牧使)로 도입 비(碑) 세워

사포가 된 조정철이 맨 먼저 찾은 것은 홍랑의 무덤이었다. 그는 직

접 비(碑)를 세우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원혼의 시를 새겨 놓았다.

옥 같던 그대 얼굴 묻힌 지 몇 해던가/  
누가 그대의 원한을 하늘에 호소 하리/  
황천길은 먼데 누굴 의지해 돌아갔는가/  
진한 피 깊이 간직 했으니 죽고 나도 인연은 이어졌네.(후략)

조정철은 흉량이 낳은 딸도 만났다. 죽음의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천행으로 만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딸은 벌써 서른이 되고 있었으며 사위 박수영(朴秀榮)은 젊은 나이로 이미 죽은 뒤였다. 그러나 손주 박규팔(朴奎八)과 두 손녀를 얻고 있었다. 그 뒤 외손도 일찍 요절하여 양손으로 대를 이었으며 외손녀 둘은 고이 성장하여 제주의 명문인 경주 김씨(慶州金氏)와 신천강씨(信川康氏) 수재들에게 출가했다. 큰 외손서 김석린(金錫麟)은 진사(進士)로 이름난 선비였다. 진사이며 『난곡시집(蘭谷詩集)』을 낸 문인 양수(亮洙)는 그의 아들이며 참사(參事)를 지낸 근시(根蓍)가 뒤를 잇는 등 명사들이 배출되었다. 또 둘째 외손서 강리철(姜履綴)은 정의현감으로 3대에 걸쳐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의 현감과 다섯 사람의 명월만호(明月萬戶)를 내는 등 후세가 번창했다.

하마터면 영원한 불귀의 객이 될 뻔했던 조정철은 그 뒤 감사(監司) 판서(判書) 대사헌(大司憲) 좌참찬(左參贊)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 현직을 두루 거치고 1831년 81세의 천수를 누리며 세상을 떠났다. 그의 후손들도 참판(參判) 교리(校理) 승지(承旨) 제헌국회의원(制憲國會議員) 등 명사들이 배출되었다.

양주조씨(陽州趙氏) 가문이 전례를 깨고 홍량을 함녕재(咸寧齋)에 향사했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홍량의 향사는 비단 양주조씨(陽州趙氏) 재각(齋閣)에만 그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의 고향 제주에도 마땅히 세워지고 그 얼을 길이 기려져야 할 것이다.